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영향 요인

장희정^{1*}, 곽윤경²

¹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²신라대학교 간호학과

Affect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Hee-Jung Jang^{1*} and Youn-Kyoung Kwag²

¹School of Nursing, Yeungnam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²Department of Nursing, Sill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확인하고 임상수행 능력의 예측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D광역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197명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1년 3월 2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었고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3.96점이었고,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이 18.2%의 설명력으로 가장 높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논리학 이수 문제해결능력을 포함한 변수가 임상수행능력의 27.2%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영향요인을 고려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clinical competence and influencing factors of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Convenience sample of 197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two colleges in D city.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2nd to 21th 2011. The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s and was analyzed with SPSS statistics 21.0. The mean score of clinical competence was 3.96.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mong clin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clinical competence were found.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clinical thinking disposition, completion of logic course, problem solving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was 27.2% and clinical thinking disposition influence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to develop the effective learning program with achievement level of clinical competency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 Clinical competenc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학문이며, 간호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하여 간호대상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다[1]. 최근 보건의료 산업과 첨단 의료기술의 발달 등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은 급·만성

질환 진단 후 생존율의 향상과 만성질환자 비율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들을 간호하는 간호사의 역할도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업무 수행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2]. 따라서 급변하고 있는 의료환경과 간호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질 높은 우수한 전문직 간호사의 교육을 위해서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간호교육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수료

*Corresponding Author : Hee-Jung Jang(Yeungnam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Tel: +82-10-2848-1369 email: hj09jang@ync.ac.kr

Received August 8, 2013

Revised September 5, 2013

Accepted September 6, 2013

한 후 간호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문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배출하는데 있다. 즉 교육을 통하여 수준 높은 질적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에게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간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상 수행 능력 개발은 중요하다[3]. 그러나 임상실습을 통해 습득된 간호대학생의 실무수준과 실제 임상에서 요구되는 간호실무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오랫동안 간호교육의 문제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4].

이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제2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영역 중 교육성과 부분에서 임상현장에서의 적응과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임상에서 필요한 수행능력 중 핵심기본간호술을 지정하여[5] 졸업학년의 핵심기본간호술 성취수준 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모든 졸업 간호사들은 실무현장에서 표준 간호능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실무 능력은 보건의료, 복지 안전의 맥락에서 간호사의 실무역할을 위해 기대되는 지식, 인간관계, 의사결정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6].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무에 필요한 간호기술과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으로[7] 교육에서 임상수행능력은 학습한 지식, 기술, 태도, 자아인지, 동기로 통합되어 구성되어 있고, 교육자들이 기대하는 교육과정의 최종 산물로서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경험하고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8].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간호대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하여 확고한 간호지식의 습득은 물론 실무상황에서 간호문제의 정확한 파악과 간호중재, 의료인과 환자와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등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자의 질적 간호 요구 증가와 간호사고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실습은 실제 간호행위 수행보다는 관찰 위주의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9]. 따라서 이러한 실습교육을 마친 졸업생이 신규채용이 되면 각 의료기관에서는 임상수행능력이 부족한 신규간호사를 위하여 채용 후 1개월에서 3개월의 실무교육을 시키고 있어 비용뿐만 아니라 인력관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교육에서의 핵심은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을 완성해가는 것이고, 교육을 통해 임상수행능력을 준비해야 하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정도 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의 조사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론

과 실습의 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된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확인하고 선행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과 관련 요인으로 나타난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 형성에 영향 요인을 규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를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규명한다.
-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 수행 능력 정도와 영향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자는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료수집에 참여를 서면 동의한 간호학생으로 D시 소재 2개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며 1년 이상 임상실습 과정을 수료한 학생 197명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비판적 사고성향

개인적 또는 전문적 업무에 있어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하는 목적 하에 스스로 판단하는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사용하려는 개인적인 성향 및 습관을 의미하며[10],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는 Kwon 등이[11] 개발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이 도구는 지적 통합 6문항, 창의성 4문항, 도전성 6문항, 개방성 3문항, 신중성 4문항, 객관성 4문항, 진

실추구 3문항, 탐구성 5문항의 5점 척도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 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 였다.

2.3.2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 측정 도구는 Heppner와 Petersen (1982)이 개발한 PSI(The Problem Solving Inventory)로, Chun[12]에 의해 번역, 역 번역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실제적인 문제해결 기술이 아닌 개인의 문제해결양식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행동과 태도,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기지각 정도를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이다.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신감 11문항, 문제해결활동에서 나타나는 접근-회피 16문항, 개인의 통제력 5문항, 3개의 여과문항을 포함한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전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긍정적 또는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각 영역별로 높은 점수는 자신감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문제를 회피하기 보다는 접근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며 개인적 통제력 또한 높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2.3.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다[13].

간호학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10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전혀만족하지 않는다' 0점에서 '매우 만족함' 10점으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4 실습만족도

실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전혀만족하지 않는다' 0점에서 '매우 만족함' 10점으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5 임상 수행 능력 측정 도구

임상수행능력 측정 도구는 Lee 등[14]이 개발하고 Choi[3] 수정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이 도구는 간호과정(11문항), 간호기술(11문항), 교육/협력관계(9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6문항), 전문직 발전(9문항)의 5개 영역 46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잘 못한다' 1점에서 '매우 잘한다' 6점까지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hronbach's $\alpha = .96$ 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 Chronbach's $\alpha = .96$ 이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3월 2일부터 21까지 20일간이며 연구참여자들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 대학을 미리 방문하여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서면으로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서면 동의한 학생들에게 강의실에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되지 않은 3부를 제외한 197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98.5%였다.

연구의 표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Cohen의 Power analysis를 근거로 G*Power 3.1 프로그램[15]을 이용해 필요한 연구대상자수를 계산하였다. 유의수준($\alpha = .05$), 검정력($1 - \beta = .80$), 효과크기($f = .3$)일 134명 이상이 계산되었다. 이를 근거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부를 작성하여 19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5 자료분석

자료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능력, 문제해결능력,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t-test와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능력, 문제해결능력,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요인은 Multiple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표본의 수는 G 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적 power를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값을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87.8% , 남학생은 12.2%였

으며 종교는 있다가 58.9%, 없다가 41.1로 나타났다. 성적은 평균 평점 3.0~3.9점 74.6%으로 가장 많았고, 4.0 이상 20.3%, 2.9 이하 5.1%순으로 나타났다. 철학과목 수강 유무에서는 없다 74.1%, 있다 25.9%였으며. 논리학 과목 수강 유무는 없다 87.8%고, 있다 12.2%였다. 대인관계는 좋다 50.8%로 가장 많았고, 보통 46.7%, 나쁨 2.5%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9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24	12.2
	Female	173	87.8
Religion	Yes	116	58.9
	No	81	41.1
Grade point average	4.0-4.5	40	20.3
	3.0~ <4.0	147	74.6
	<3.0	10	5.1
Completion of philosophy course	Yes	51	25.9
	No	146	74.1
Completion of logic course	Yes	24	12.2
	No	173	87.8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00	50.8
	Common	92	46.7
	Not good	5	2.5

3.2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 능력,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3.17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평균은 개방성 3.40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적통합 3.34점, 신중성 3.31점, 진실추구 3.25점, 탐구성 3.17점, 객관성 3.09점, 도전성 3.01점, 창의성 2.94점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은 4점 만점에 2.64점이었고, 하위영역별 평균은 개인의 통제력 접근·회피 양식이 2.74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제해결 자신감 2.61점, 개인의 통제력 2.35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80점이었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14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은 6.점 만점에 3.96점이었고, 하위영역별 평균은 대인관계/의사소통이 4.1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직 발전 4.02점, 간호기술 3.93점, 교육/협력관계 3.92점, 간호과정 3.83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y among nursing students

(N=197)

Variables	Mean(SD)	Range of scores	
		Min	Max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17(0.65)	1.00	4.80
Intellectual integrity	3.34(0.58)	1.67	5.00
Creativity	2.94(0.65)	1.50	5.00
Challenge	3.01(0.68)	1.50	5.00
Open-mindedness	3.40(0.54)	2.00	5.00
Prudence	3.31(0.58)	1.50	5.00
Objectivity	3.09(0.58)	1.25	5.00
True-seeking	3.25(0.67)	1.33	5.00
Inquisitiveness	3.17(0.65)	1.00	4.80
Problem solving ability	2.64(0.21)	2.09	3.50
Problem solving confidence	2.61(0.26)	1.82	3.82
Approach-avoidance style	2.74(0.28)	2.13	3.69
Personal control	2.35(0.31)	1.40	3.40
Major satisfaction	7.80(2.08)	3.30	10.00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7.14(2.10)	3.30	10.00
Clinical competency	3.96(0.65)	2.22	5.74
Nursing process	3.83(0.65)	2.09	5.82
Nursing skill	3.93(0.63)	2.09	5.82
Teaching/coordinating	3.92(0.65)	1.67	5.78
Interpersonal relationship / communication	4.17(0.70)	2.00	6.00
Professional development	4.02(0.70)	1.78	5.89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논리학을 이수한 대상자가 유의하게 높았으며($t=-4.218$, $p<.001$), 성별, 종교, 학업성적, 철학이수, 대인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linical competen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7)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t/F	p
Gender	Male	3.89(0.42)	-.643	0.521
	Female	3.97(0.58)		
Religion	Yes	3.95(0.59)	.585	0.779
	No	3.97(0.52)		
Grade point average	4.0-4.5	4.14(0.55)	2.942	0.055
	3.0-<4.0	3.92(0.57)		
	<3.0	3.94(0.43)		

Completion of philosophy course	Yes	3.93(0.56)	-1.141	0.255
	No	4.03(0.57)		
Completion of logic course	Yes	4.39(0.46)	-4.218	<0.001
	No	3.90(0.55)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4.03(0.65)	1.831	0.163
	Common	3.87(0.50)		
	Not good	4.00(0.65)		

3.4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197)

	Clinical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431 (p<.001)
Problem solving ability	.424 (p<.001)
Major satisfaction	.214 (p=.003)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275 (p<.001)

3.5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 요인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논리학 이수율과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Table 5] Variable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Variables	B	S.E	β	t	p	Adj R2	F	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562	.086	.43	6.64	<.000	.182	44.12	<.001
Completion of logic course	.426	.108	.25	3.95	<.000	.239	35.51	<.001
Problem solving ability	.640	.207	.24	3.01	.002	.272	25.13	<.001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62 - .99로 모두 1.0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1 - 1.60으로 기준인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논리학 이수, 문제해결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영향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이 18.2%의 설명력을 가졌으며 논리학 이수, 문제해결능력을 포함한 변수가 임상수행능력 변량의 총 27.2% 설명하였다[Table 5].

4.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간호교육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는 핵심역량인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6점 만점에 평균 3.96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영역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한 Kang의[17] 3.9점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이 그다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과과정과 교수학습 방법 및 실습교육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교육평가원 2주기 교육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임상수행능력인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성취수준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5] 간호교육기관 2주기 평가 전후의 간호대학생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하위 영역에서는 대인관계/의사소통이 4.1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직 발전 4.02점, 간호기술 3.93점, 교육/협력관계 3.92점, 간호과정 3.83점 순으로 나타나 Choi[3], Kang[17], Cha[18]의 연구에서는 전문직 발전이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결과는 나타내었지만 간호과정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 하였다. 이는 임상실습 교육이 주로 관찰과 기술적 영역에 치중하고

있어[3], 단순한 기술적인 면은 실습할 기회가 많으나 체계적 관찰과 문제해결 기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규명하여 진단을 내리고 계획, 중재, 평가하는 과정은 어렵다고[19]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과정에 대한 적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습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실제로 임상판단능력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에서 논리학 이수 유무에 따라 즉, 논리학을 이수한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Chaung[20]의 연구에서 논리학 이수 유무가 임상수행능력에는 차이가 없다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추후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논리학을 통해 추론, 옳고 그름의 여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 등을 학습함으로써 임상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적절한 간호중재를 수행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은 3.17 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유사한 도구로 수행한 Kim과 Kim[21]의 연구에서 3.12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개방성이 3.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의성이 2.9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영[22]의 연구에서 개방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개방성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자신의 오류가능성과 편견을 인정하는 성향이다[23]. 개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대상자들이 임상실습교육을 통하여 자신과 다른 다양한 가치체계와 생활방식을 가진 대상자에게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여러 보건의료진과의 협력을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개인적인 편견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성향으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창의성은 아이디어를 생성, 발견, 재구성하고 대안고안을 위해 지적으로 창안하려는 성향이다[23]. 창의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전반적 교육 방향이 학생에게 사고보다는 주입식 교육에 치우쳐 있어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창의성을 배양하기 위해 간호교육에서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간호평가원의 2주기 인증평가에서는 교수중심에서 벗어나 대상자 학습성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을 반영하고 있어 간호교육이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은 평균 2.64점(5점 만점)으로 중간정도의 수준을 나타내었고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유사한 도구로 수행한 마[24]의 2.44점 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정도를 아주 긍정적으로도 간주하지 않고 중간 정도에 속한다고 평가하며 스스로를 적정 수준의 문제해결자로서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7.80(10점 만점)으로 실습만족도 7.14(10점 만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고 임상실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 중심의 실습교육 과정과 최적의 실습환경 조성, 교육기관과 병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의 상관관계는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었는데 Chung[20]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일치된 결과가 나타났다. Park 등의[25] 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성향, 논리학 이수, 문제해결능력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영향 요인은 사고성향으로 18.2%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논리학 이수, 문제해결능력을 포함한 변수가 임상수행능력을 27.2% 설명하였다. 이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Chung의[20]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비판적 사고성향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비판적 사고성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입식 강의 보다는 문제제기식의 상호교환 방법을 등의 교육기법이 시도되어야 하며[22], 간호교육현장에서 간호대학생이 비판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학습할 수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교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 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교과과정 내에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4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인 임상수행능력 영향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D시 소재 2개의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인 학생으로 1년 이상 임상실습을 수행한 학생 197명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3월 2일부터 21일까지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3.17점이었으며, 하위영역에서는 개방성이 가장 높았다. 문제해결능력은 4점 만점에 2.64점이었고, 하위영역

에서 개인의 통제력 접근-회피 양식이 2.7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80점이었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14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은 6점 만점에 3.96점이었고, 하위에서 대인관계/의사소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논리학 이수, 문제해결능력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비판적 사고성향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학의 노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 임상수행능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지역 소재의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간호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국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수를 확대하여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임상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과기반 교육과정의 개발과 임상수행 능력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I. S. Kwon, "An analysis of research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2, No. 5, pp. 706-715, 2002.

[2] J. W. Distler,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competence :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student-centered teaching strategies in an advanced practice nurse curriculum",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7, No. 1, pp. 53-59, 2007.
DOI: <http://dx.doi.org/10.1016/j.nepr.2006.08.003>

[3] M. S. Choi,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5.

[4] P. Burns. & F. C. Poster, "Competency development in new registered nurse graduates: closing the gap between education and practic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Vol. 39, No. 2, pp. 67-73, 2008.

DOI: <http://dx.doi.org/10.3928/00220124-20080201-03>

[5]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Specify the college four-year term of study screening, retrieved April, 22, 2013, <http://kabon.or.kr/kabon02/index04.php>, 2013

[6] National Council of State Board of Nursing, <http://www.ncsbn.org>(accessed Mar, 30, 2013) (2003)

[7] D. Rane-Szostak, & J. F. Robertson, Issues in measuring critical thinking; meeting the challeng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35, No. 1, pp. 5-11, 1996.

[8] Z. Zhang, W. Luk, D. Arther, & T. Wong, "Nursing competencies; personal characteristic contributing to effective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33, No. 4, pp. 467-479, 2001.
DOI: <http://dx.doi.org/10.1046/j.1365-2648.2001.01688.x>

[9] Y. H. Shon, H. S. Kang et al, "Comparison of student nurse graduating from a junior college or a university on observation and performance of nursing role"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3, No. 2, pp. 172-181, 2006.

[10] K. R. Shin, J. Y. Ha &, & K. H. Kim, "A Longitudinal Study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 Critical Thinking Skill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2, pp. 382-389, 2005.

[11] I. S. Kwon, et al., "Development of 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al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6, No. 6, pp. 950-958, 2006.

[12] S. G. Chun,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for rehabilitation of the schizophrenic patients", Unpublished Docto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1995.

[13] H. S. Ha, A study i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 University, Seoul, 1999.

[14] W. H. Lee, J.G. Kim, J. S. Yoo, H. K. Hau, K. S. Kim, & S. M. Yim, A study in instrument development of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Yeonse Nursing*, 13, pp17-29, 1991.

[15]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2007.
DOI: <http://dx.doi.org/10.3758/BF03193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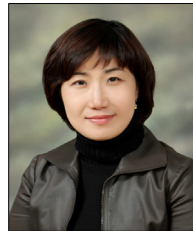
[16] Y. H. Lee et al, Statistical methods for health care research, Koon Ja Medical, Seoul, 2006.

- [17] H. O. Kang, A study on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n nursing student, Unpublished Ma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2009.
- [18] J. A. Cha, Correlations between for nursing students i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Ma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2013.
- [19] K. J. Ko,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Ma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Kangneung, 2003.
- [20] S. K. Chau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of Nursing, Vol. 18, No. 1, pp. 71-78, 2011.
- [21] K. H. Kim, G. D.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of colleg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3, No. 2, pp. 229-236, 2007.
- [22] J. J. Yang, The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5, No. 2, pp. 159-165, 2009.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09.15.2.159>
- [23] I. S. Kwon et al , "Develop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al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6, No. 6, pp. 950-958, 2006.
- [24] M. R. M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9.
- [25] M. S. Park, M. H. Lee, & J. A. Gu, "Clinical Competency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Vol. 9, No. 2, pp. 111-123, 2011.

장 희 정(Hee-Jung Jang)**[정회원]**

- 2004년 2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05년 3월 ~ 2008년 2월 : 동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

곽 윤 경(Youn-Kyoung Kwag)**[정회원]**

- 2011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11년 3월 ~ 2013년 2월 :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3년 9월 ~ 현재 : 신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